



명예와 신용존중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2015-304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영승
2.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3. 조선닷컴 발행인 김찬
4.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태석
5. 경기일보 발행인 신선철

주문

경향신문(khan.co.kr) 2015년 3월 18일자 「서세원·서정희 부부 딸 서동주 “엄마 주장 사실 … 빨리 이혼 했으면”」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3월 18일자 「서세원 딸 서동주 “엄마 말 사실 … 필요하다면 증인 될 것”」 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3월 18일자 「서동주 “엄마 말이 사실 …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3월 20일자 「서세원·서정희 집사 ‘32년간 폭행 발언..희한하다」」 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3월 18일자 「서세원-서정희 딸 서정주 … “엄마 말이 사실, 증언하겠다”」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경향신문, 국민일보, 조선닷컴, 일간스포츠,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서세원·서정희 부부 딸 서동주 “엄마 주장 사실 … 빨리 이혼 했으면”

입력 2015.03.18 14:18:26 수정 2015.03.18 14:18:26

방송인 서세원씨(59)와 서정희씨(53) 부부의 딸 서동주씨(사진)가 이혼 소송중인 엄마를 위해 증인으로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동주씨는 지난 17일 Y-STAR와의 인터뷰에서 법정 공방 중인 부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엄마 아빠가 소송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크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닫은 게 있다. 같은 여자다 보니 엄마에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주씨는 엄마 서정희씨 주장이 사실이라며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동주씨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서정희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처럼 생활했다”면서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10일 주거지인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서세원 딸 서동주 “엄마 말 사실 … 필요하다면 증인 될 것”

입력 2015.03.18 13:10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딸 서동주가 엄마를 위해 증인으로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동주는 17일 Y-STAR와의 인터뷰에서 법정 공방 중인 부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엄마 아빠가 소송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크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다. 같은 여자다 보니 엄마에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주는 엄마 서정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정희는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해 결혼했고, 포로생활과

다름없는 결혼생활을 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서동주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박○○ 기자 p***212@kmib.co.kr』

(조선닷컴)=『서동주 “엄마 말이 사실 …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기사입력 2015.03.18 10:08:57



서세원 서정희 서동주 “엄마 말이 사실”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딸 서동주가 심경을 밝혔다.

18일 Y-STAR는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딸 서동주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서동주는 “엄마·아빠가 소송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크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점이 있다. 같은 여자다 보니 엄마에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동주는 지난 12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빠 서세원의 네 번째 공판에서 엄마 서정희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밝힌 충격 발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서동주는 “엄마가 하는 말들은 사실이다”라며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만약 필요한 부분

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하겠다”며 부모님의 법정 공방에 직접 나설 의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딸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일간스포츠)= 『서세원·서정희 집사 ‘32년간 폭행 발언..희한하다’

입력 2015.03.20 19:39



이혼 소송 중인 서세원과 서정희의 집사 일을 12년간 했다고 알려진 최모 씨의 발언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최모 씨는 20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동주엄마(서정희)의 발언이 희한하다”며 “동주아빠(서세원)가 폭행다고 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발언했다.

최모 씨는 “동주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동주엄마를 타이른 적은 있었고, 목소리가 커서 말로 혼냈기는 하지만 내가 십몇 년 같이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며 “폭행당했으면 병원도 갔을 텐데”라고 말했다.

최모 씨는 스스로 “누구의 편이 아니다.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발언이 서세원이 위한 것이 아님을 서정희와 친분을 통해 강조했다.

최모 씨는 “(서정희와) 교회에서 만나면 포옹도 한다”며 “그럴 사람이 아닌데 32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깐 조금 이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말다툼 도중 서세원이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며 또 소를 제기했다. 서정희는 지난 12일 열린 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 서세원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서정희는 18일 극비리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기자 b***larmin@mtstarnews.com』

(경기일보)= 『서세원-서정희 딸 서정주 ... “엄마 말이 사실, 증언하겠다”

승인 2015.03.18



엄마 말이 사실, 증언하겠다

서세원의 딸 서동주가 “엄마 말이 맞다”며 “필요하다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세원의 딸 서동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세원과 서정희의 소송에 말문을 열었다.

서동주는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엄마(서정희)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라며 “가족 이야기가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강남구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지하 2층 로비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12일 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하지만 목을 조른 점과 사건의 전후 사정과 배경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예인 서세원과 서정희 씨 부부의 가정폭력과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정희 씨는 2014년 7월 서세원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말다툼 도중 서세원 씨가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며 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 씨 부부의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딸 서동주 씨는 3월 17일 연예 유선채널인 Y-STAR와의 인터뷰에서 “엄마 말이 맞다”며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주 씨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딸 서동주 씨의 발언이 있고 난 바로 다음날 서정희 씨는 18일 “딸과 상의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문제는 서 씨 부부의 이혼 소송에 딸인 서동주 씨까지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 ‘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진실 규명’이라는 미명 하에 보호받아야 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가 있어선 안 된다. 서동주 씨도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동주 씨는 미국 명문 웨슬리여대, MIT를 거쳐 박사과정시험(GRI)에서

1600점 만점에 1590점을 받아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 박사과정에 장학생으로 입학,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실명이나 사진이 공개된 상태이므로, 공인의 범주에 들 수 있는 만큼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인의 범주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도 공익을 위한 보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는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아닷컴, 세계닷컴, 매경닷컴, 중부일보는 서동주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하였다.

사실 보도라 하더라도, 이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6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문

서울신문 2016년 2월 2일자 8면 「뺨 뚫린 軍 ... 불륜남녀 '독신 숙소' 들락날락」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들이 버짓이 동거하며 8개월 이상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불륜 과정에서 남자가 여자의 해군 독신자 숙소를 제 집처럼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총체적인 군기 문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육군 A(37)상사와 해군 B(29·여)대위는 지난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미 결혼해 부인과 자녀가 있는 A상사와 미혼인 B대위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이상 수차례 휴가와 당직 근무, 출장 일정을 똑같이 맞춰가며 불륜을 일삼았다. 특히 A상사는 B대위가 거주하던 서울 대방동 해군 독신자 숙소에 수시로 출입하며 사실상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동료 등의 증언을 토대로 뒤늦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사이버사령부 측은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함구할 것을 당부하고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각각 정직 2개월,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B대위는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로 전출된 상태다.

해군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A상사가 숙소를 무단출입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숙소 측은 뒤늦게 제보를 받고 지난달 3개월 동안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B대위와 A상사가 수십 차례 이상 건물로 함께 들어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남녀 독신 간부 200여명이 거주하는 이 숙소는 내규상 입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거주할 수 없고, 풍기문란과 관련된 활동이 적발되면 즉각 퇴거 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입주자의 출입카드와 CCTV 이외에는 사실상 출입 관리 시스템이 없다.

특히 A상사는 숙소에 자신의 승용차를 입주자 B대위 명의로 등록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다. 숙소 측은 차량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 서류

확인도 없이 등록을 허용해 성 군기 위반을 묵인한 꼴이 됐다.

해군은 지난달 8일 B대위를 규정 위반으로 숙소에서 퇴거 조치했다.

해군 관계자는 “편제상 숙소를 관리하는 인원이 병사 2명뿐이고 이들이 24시간 일일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야 할 인력까지 거주하는 군 숙소 출입 관리 자체가 허술해 유사시 이들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군의 보안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육군 상사와 해군 대위가 8개월 이상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자녀와 부인이 있는 A상사와 미혼인 B대위는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휴가와 당직 근무, 출장 일정을 똑같이 맞춰가며 불륜을 일삼았다. A상사는 B대위가 거주하던 해군 독신자 숙소를 수시로 출입하며 사실상 동거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두 사람을 A와 B 영문 이니셜로 익명처리하면서도 이들의 근무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각각 육군 상사와 해군 대위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이고, 지난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고, 남녀 독신 간부 200명이 거주하는 대방동 해군 독신자 숙소에서 사실상 동거생활을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각각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B 대위는 지난달 독신자 숙소해서 퇴거조치 당한 뒤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로 전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기술은 관련자들의 주변 사람이라면 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보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6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5년 4월 16일자(캡처시각) 「정소녀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고, 사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4.16 18:57>

『1대100』 정소녀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는 루머 황당”

입력 2015.04.15 08:14:00

배우 정소녀가 과거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방송된 KBS 2TV '1대100'에 1인으로 출연한 정소녀는 100인과 경쟁하며 5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했다. 정소녀는 이날 방송에서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의 아기를 낳았다는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정소녀는 “내가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가 있었다. 난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한 기자가 가봉에 가서 취재를 했고, 그의 아이가 100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루머가 풀어졌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정소녀가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를 해명한 내용이다. 정소녀는 기사에서 “내가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가 있었다. 난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문을 연 것으로 돼 있다. 이 기사의 제목도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는 루머 황당”이다. 하지만 이 기사를 알리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제목은 정반대다. 「정소녀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고, 사실...”을 보면 마치 정소녀가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은 것처럼 보인다. 왜곡된 제목, 잘못된 제목이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제목을 다는 것은 신문 윤리실천요강의 편집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사에 등장하는 정소녀의 명예도 훼손할 수 있다. 가봉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5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2.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3.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4. 쿠키뉴스 발행인 변 재 운
5.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6.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5년 10월 18일자 「신세계백화점 점원, 고객 앞에 무릎 꿇은 영상 논란」 기사의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10월 18일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서 또 갑질 논란...점원들 무릎 꿇고 사과」 기사의 사진, 국민일

보(kmib.co.kr) 10월 18일자 「이번엔 인천에서 백화점 고객 갑질 논란, 점원 2명 무릎 꿇고 사죄」 기사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10월 18일자 「‘갑질민국’ 또 터졌다 … 백화점 점원 ‘무릎 사죄’ 영상 파장」 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18일자 「고객 갑질 논란, 인천 백화점서 서비스 문제로 훈계 … 점원 무릎 꿇어」 기사의 사진,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10월 18일자 「무상수리 거부에 고객의 갑질..점원 ‘무릎사죄」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 국제신문,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경닷컴, 코리아타임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 『인천 백화점 점원 고객 앞에서 무릎 꿇은 영상 화제..고객 갑(甲)질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2015.10.18 13:47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서 점원 2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하는 영상이 공개돼 ‘고객 갑(甲)질’ 논란이 재점화됐다.

16일 처음 공개돼 SNS를 통해 퍼진 1분 27초짜리 영상에는 한 여성 고객이 의자에 앉아 무릎을 꿇은 백화점 점원 2명을 나무라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고객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서비스 문제를 언급하며 점원들에게 “너네 둘 다 똑바로 해. 지나가다 마주치면 죄송하다고 해”라고 다그쳤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점원들은 “그게 아니구요 고객님”이라고 답하며 고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 고객은 16일 오후 3시쯤 백화점 1층 고가 귀금속을 판매하는 S 매장에서 제품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직원들이 규정상 수리비가 청구된다고 하자 점원들의 고객 응대법을 문제 삼아 1시간가량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객의 항의가 심해져 지나가는 고객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도 당시 근처에 있던 다른 고객이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영상 촬영자에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촬영자가 이를 거부하고 영상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갑질’ 고객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화제가 됐다.

백화점 측은 “점원들이 상황을 원만히 끝내고 싶어 잠시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뿐”이라며 “고객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거나 폭언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점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17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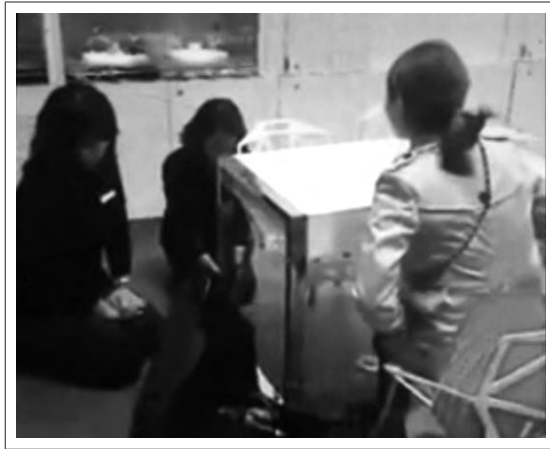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백화점 고객의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폭언을 하고 뺨을 때려 논란이 됐다. 당시 화를 당한 요원은 모녀가 처벌되길 바란다며 밝혔고, 모녀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고객이 의류 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산대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에 내던지고 남성 직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됐다.』

(국제신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서 또 갑질 논란...점원들 무릎꿇고 사과
기사입력 2015.10.18 12:03:01



(국민일보)= 『이번엔 인천에서 백화점 고객 갑질 논란, 점원 2명 무릎 꿇고 사죄』(이하 본문 생략)

(쿠키뉴스)= 『‘갑질민국’ 또 터졌다 ... 백화점 점원 ‘무릎 사죄’ 영상 파장』

(한경닷컴)= 『고객 갑질 논란, 인천 백화점서 서비스 문제로 혼계 ... 점원 무릎 꿇어』

(코리아타임스)= 『무상수리 거부에 고객의 갑질..점원 ‘무릎사죄』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서 점원 2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하는 영상이 공개돼 소위 ‘고객 갑질’ 논란이 재점화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고객이 점원을 나무랐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한 뒤 해당 점원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문제는 조선닷컴 등이 백화점 점원과 고객의 얼굴을 공개해 ‘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에서 밝혔듯이 게재한 사진은 근처에 있던 다른 고객이 촬영해 SNS에 올린 것을 캡처한 것이다. 어느 정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인지 점원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이고, 고객은 뒷모습만 나와 신원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특정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름을 성만 표기한다거나 뒷모습을 촬영하는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 내용과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 주변 상황을 종합 판단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영상 촬영자에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영상공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더욱 유의했어야 한다.

‘알 권리’만을 앞세워 보호받아야 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인격권(초상권)과 명예훼손 침해 소지가 있는 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은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세계닷컴, 경인일보, 인천일보, 매일일보, 동양일보, 스포츠경향, 한라일보는 점원과 고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했고, 경향신문과 매경닷컴은 사진 없이 기사만 내보냈다.

사실 보도라 하더라도, 이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4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3.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4.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5.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6.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7.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9.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발행인 조 상 현
10.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1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1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백 석 기
1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14.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세계닷컴(segye.com) 2016년 1월 4일자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4일자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진행 중」 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월 4일자 「MBC측 “강민경, 부친 구설수에도 정상 촬영 중”[공식 입장]」 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월 4일

자 「강민경, 부친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받는 중...세금 낼 돈 회사 자금으로 소비」 제목의 기사 외 1건, 중앙일보(joins.com) 1월 4일자 「다비치 강민경 부친,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중...4억 이상 유용?」 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4일자 「A 종교재단 측 “강민경父, 역대 사기·횡령 혐의 검찰 조사”」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4일자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 소속사 측 “입장 밝히기 곤란”」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월 4일자 「건축회사 사장 다비치 강민경 부친, ‘횡령 혐의 검찰 조사 받아’」 제목의 기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hankooki.com) 1월 4일자 「부친 사기 혐의 피소 강민경, 부친 수억대 사기 횡령 혐의 … ‘무슨 일?’」 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4일자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피소(전문 포함)」 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4일자 「[전문]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 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월 5일자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소속사 입장은?(전문 포함)」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4일자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중? … 무슨 일이?」 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월 4일자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세계닷컴 등 14개 언론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닷컴)=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2016.01.04 23:58:48 수정 2016.01.04 23:58:48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사진= 세계일보DB]

다비치 '강민경 부친',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걸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이 수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경의 부친 강씨는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 재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금성의 유현주 변호사는 “강씨가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는데, 2009년경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약 4억44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다”며 “A 재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A 재단은 뒤늦게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이기에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

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단은 2014년경 강씨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위 고소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민경의 소속사 CJ E&M측은 4일 한 매체를 통해 “가족 개인의 일이라 소속사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팩트에 대해서도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강민경의 아버지 강씨가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강민경은 MBC 일일드라마 ‘최고의 연인’에 출연해 열연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팀 조○○ 기자 j**@segye.com

(이하 기사 본문 생략)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이자 연기자인 강민경의 부친이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위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했다 하더라도 강민경이 연루되지 않은 이상 이는 부친에 국한된 문제일 뿐 본인과는 하등 관련 없는 일이다. 게다가 기사에는 고소를 당한 강민경의 부친이 검찰의 1차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재조사를 받는다고 밝혀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사에 보도 가치가 있는지 그 판단은 해당 매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관련되지 않은 가족의 피소 건을, 그것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을 공개해 보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 보

호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 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2015-3155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재활

주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5년 10월 12일자 「[잇! 스낵] “박기량 다 돌려 먹었다” 충격 루머에 ‘사실무근’ 입장 밝혀」 제목의 기사와 사진, 와우한국경제 TV(wowtv.co.kr) 10월 13일자 「‘야구 여신’ 박기량, “다 돌려 먹는다” 충격 루머 내용이.. 누가?」 제목의 기사와 사진, 10월 13일자 「박기량 루머 사실무근, 내용이 뭐길래? ... “취도 안먹고 박기량도”」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한경닷컴과 와우한국경제TV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경닷컴)= 「[잇! 스낵] “박기량 다 돌려 먹었다” 충격 루머에 ‘사실무근’ 입장 밝혀

작성일 Oct 12th, 2015 by 한○○

박기량, 사실무근 입장 밝혀



박기량 사실무근 / 사진 = 맥심 화보

치어리더 박기량이 루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야구선수 A씨의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SNS에 A씨 관련 글을 게재하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취도 안먹고 박기량 또한 다 돌려 먹어서 난 안 그래요”

해당 글에서 이 네티즌은 A씨가 ‘박기량’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냈고, 양다리에 폭언 및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기량의 소속사 RS컴퍼니는 1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간 입장표명과 해명을 위해 SNS에 폭로성 글을 올린 이의 신원과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정황을 파악했다”며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법적 조치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며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기량은 수년 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응

원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기량 측은 “걱정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박기량 팀장과 치어리더들에게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한 아나운서가 야구선수와의 루머에 휩싸였다가 충격적인 결말로 이를 잠재웠다.

이 아나운서는 스캔들 루머에 시달리다가 자택인 오피스텔 19층에서 투신자살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책상 위에는 자살을 앞둔 심경이 담긴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피해자가 자살까지 한 사건을 보면 박기량의 사건 역시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다. 루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루 빨리 진위가 밝혀져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OO 한경닷컴 기자 g***e@hankyung.com」

※한경닷컴 <snacker> 초기화면



<캡처시각 10.12. 17:19>

(한경와우TV 1)= 『야구 여신' 박기량, “다 돌려 먹는다” 충격 루머 내용
이..누가?

입력 2015.10.13 01:30



박기량 사실무근, 사생활 문란 루머 왜?

야구 여신 박기량, “다 돌려 먹는다” 충격 루머 내용이.. 누가?

박기량 사실무근

치어리더 박기량이 루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야구선수 A씨의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SNS에 A씨 관련 글을 게재하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취도 안먹고 박기량 또한 다 돌려 먹어서 난 안 그래요”

해당 글에서 이 네티즌은 A씨가 ‘박기량’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냈고, 양다리에 폭언 및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기량의 소속사 RS컴퍼니는 1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간 입장표명과 해명을 위해 SNS에 폭로성 글을 올린 이의 신원과 사실 여부

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정황을 파악했다”며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법적 조치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며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기량은 수년 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기량 측은 “걱정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박기량 팀장과 치어리더들에게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한 아나운서가 야구선수와의 루머에 휩싸였다가 충격적인 결말로 이를 잠재웠다.

이 아나운서는 스캔들 루머에 시달리다가 자택인 오피스텔 19층에서 투신자살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책상 위에는 자살을 앞둔 심경이 담긴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피해자가 자살까지 한 사건을 보면 박기량의 사건 역시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다. 루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루 빨리 진위가 밝혀져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경와우TV 2)= 『박기량 루머 사실무근, 내용이 뭐길래? ... “취도 안먹고 박기량도”

채○○ 기자 c***n833@wowtv.co.kr

입력 2015.10.13 00:01



치어리더 박기량이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사실무근'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야구선수 A씨의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A씨 관련 글을 게재하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 이 네티즌은 “취도 안먹고 박기량 또한 다 돌려 먹어서 난 안 그래요”라며 A씨가 ‘박기량’을 언급하며 보낸 메시지와 함께 A씨가 양다리에 폭언 및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기량 소속사 측은 지난 11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 네티즌이 온라인에 폭로한 A선수 관련 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속사 측은 “지난 10월8일 목요일 SNS상에 올라온 A 선수 관련 폭로성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걱정 하셨을 거라 생각된다.

먼저 늦은 해명에 사과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명이 늦은 이유에 대해 “A 선수 관련 폭로성 글에 다수의 피해자분들이 계셨고 저희의 발언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일간 입장표명과 해명을 위해 SNS에 폭로성 글을 올린 이의 신원과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올린 이의 신원과 이 일의 정황을 파악했다”며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리고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실무근의 낭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법적 조치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적극 해명 할 것이고,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RS컴퍼니 측은 “박기량은 수년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다.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하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만큼 더 노력하여 발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다. 걱정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이 야구선수 A씨의 전 여자친구가 A씨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당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는 박기량의 소속사의 반박을 함께 싣고 있다.

보도와 관련,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A씨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이 네티즌은 A씨가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자신과 5개월간 사귀었다고 분개하며 야구팀 감독, 특정 야구선수와 A씨 팬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동안 나눴던 대화내용을 폭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야구 좋아하는 년들은 다 망가졌다. 냄새나게 생겼다. … 쥐도 안먹고 박기량 또한 다 돌려먹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돌려먹었다’의 사전적 정의는 “원래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바꾸다”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사용하는 저속한 표현으로, 여성을 마치 먹는 것에 비유한 성차별적이고 패륜적인 단어이다. 결국 한 여성

을 상대로 한 남성들의 집단성행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다수의 남성에게 성관계에 흔쾌히 응할 여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윤간(輪姦)’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윤간은 통상 징역 6년~9년에 이를 정도로 형량이 높다. 이렇듯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을 SNS에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감 없이 보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본문에 이를 적시함은 물론 제목에도 반영했다. 한 여성에게 치명적인 모욕을 안겨 줄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돌려먹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한 곳은 국내 언론사 가운데 한경닷컴 외에는 단 한군데도 없으며, 해당 보도자료에도 이같은 표현은 없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해당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분쟁시 언론사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통상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면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확인작업 등 ‘얼마나 제대로 충실하게 보도하려고 하였는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기사는 그러한 노력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다. 한경닷컴은 나아가 박기량과 관련된 루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루 빨리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위 기사를 제목만 바꾸고 크레디트를 삭제한 채 자회사인 한경와우TV에 그대로 올려놓아 루머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였다. 한경와우TV는 이와 별개로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돌려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위 기사에 첨부된 사진도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해당 사진이 본인의 동의하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촬영 당시 피촬영자가 합의했던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한 경우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피촬영자인 박기량은 자신의 명예가 침해당했다고 A씨 및 B씨의 여자친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비춰, 같은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도

후 A씨와 A씨의 여자친구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사과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음란한 표현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한 동시에 신문의 품위를 훼손하였고, 미확인사실을 과대편집하였으며, 저속한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며,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8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정영무

주문

한겨레 2015년 6월 22일자 29면 「‘분서’ 권하는 사회」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한겨레의 위 적시 칼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장에 바람 잘 날 없는 한 주다. 표절 혐의에 휩싸인 신경숙과 창비 출판사의 책들을 내다버리겠다는 아우성이 들끓는다. 해당 작가와 출판사의 다른 책들에 대한 지지까지 철회하는 게 정당한가 고민되지만, 결연한 다짐에 함축된 실망의 크기는 충분히 짐작된다.

오랫동안 내 문학수업의 한 축이었던 작가가 ‘표절’이라니 놀라웠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에 대한 지식인들의 광범위한 ‘분노’다. 신경숙의 표절은 “긴급 대토론회”를 요하는 것이었으며, 순식간에 ‘순수문학의 오염’이자 ‘1990년대 문학의 타락’, 나아가 ‘한국문학의 몰락’으로 의미화됐다. 이 점층법의 논리를 목도하면서, 소설가 한 명이 이렇게나 많은 걸 상징하고 있었나 싶어 아찔해졌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오히려 그를 희생자로 묘사하는 ‘마녀사냥’ 프레임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곧이어 발표된 신경숙과 창비의 무책임한 변명, 악명 높은 ‘국익론’을 기어이 시전(?)한 한국소설가협회의 압도적인 뻔뻔함은 그런 걱정을 무색하게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나는 사건을 제보한 이용준 작가의 글을 거듭 읽었는데 일단 내 독해력을 의심하며 묻노니, 그 글에 쓰인 “한국문단”과 “한국문학”, “한국문인”은 도대체 누군가. 그 글에서 저 세 주체는 신경숙과 동일시되거나, 침묵으로써 그녀와 공모한 대상이며, 신경숙을 단죄하여 “진정한 문학”에 대한 “순정”과 “고결함”을 수호할 “나”와 “미래의 문우들”이기도 하다. ‘신경숙’ 혹은 “나”와 “미래의 문우들”은 어떻게 ‘한국문학’과 ‘한국문학의 타자’를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걸까.

신경숙의 표절을 성토했다는 이들은 곧장 조경란, 천운영, 전여옥으로 소급되는 표절의 계보를 소환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비근한 예인 황석영의 <강남몽> 표절 사건은 가벼운 에피소드로만 치부됐으며, 내 기억으로도 당시 분노의 밀도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 황석영이 아니라 신경숙에 이르러서야 한국 문학계를 파탄낸 장본인으로서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명한 ‘못된 년(bitch)’인 박근혜, 조현아와의 커플링이 가능했다는 점은 무엇을 뜻할까. “한국문학”은 모처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김에, 이 ‘비난의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성별화’에 갖든 욕망도 성찰해볼 일이다.

분서 욕망을 일으키는 사건이 또 있다. ‘진보논객’ 한윤형과 박가분(박원익)의 데이트폭력 혐의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보된 것이다. 그런 사례들은 술하게 많아서, 현재 에스엔에스(SNS)에는 데이트폭력을 겪은 여성들의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제2의 ‘100인위’ 사건이 생긴다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놀

라운 것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질문들이다. ‘오래전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나’, ‘사적 보복의 목적이 있지 않냐’는 물음들. 신경숙의 고발자에게는 물어진 적 없는 질문들이다.

한윤형과 박가분은 ‘짱돌을 들지 않는’ 88만원 세대에 대한 486세대의 소망이 고스란히 투영된 차세대 이데올로그들이다. 이들은 여성영화제 패널로 참여할 만큼 페미니즘도 아주 ‘잘 배웠다’. 그렇다면 이 ‘진보 키드’들의 현재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바라건대, 신경숙의 경우가 그러했듯 작금의 사태도 ‘진보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무겁게 사유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유력한 글쓰기 양식이 된 ‘사과문’ 작성의 ABC에 대해 “긴급” “대토론회”를 여시기를.]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분서’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위 한겨레 칼럼은 근현대문화 연구자인 오혜진 씨가 작성한 것으로 표절 논란에 휩싸인 작가 신경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난이 과도하다는 내용이다.

오 씨는 칼럼에서 『신경숙의 표절을 성토했다는 이들은 곧장 조경란, 천운영, 전여옥으로 소급되는 표절의 계보를 소환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비근한 예인 황석영의 〈강남몽〉 표절 사건은 가벼운 에피소드로만 치부됐으며, 내 기억으로도 당시 분노의 밀도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면서 『황석영이 아니라 신경숙에 이르러서야 한국 문학계를 파탄낸 장본인으로서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명한 ‘못된 년(bitch)’인 박근혜, 조현아와의 커플링이 가능했다는 점은 무엇을 뜻할까. “한국문학”은 모처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김에, 이 ‘비난의 대상에 대한(무)의식적 성별화’에 깃든 욕망도 성찰해볼 일이다.』고 기술했다. 작가 신경숙의 처지를 비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명한 ‘못된 년(bitch)’』으로 묘사, 사실상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못된 년’은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한 여자를 낮잡아 이르

는 말'로 일종의 욕설이다. 칼럼에서 '못된 년'을 영문으로 표현한 bitch 역시 '암캐' '(개 같은) 년'이라는 의미의 욕설이다. 게다가 오 씨는 칼럼에서 두 사람을 비방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한 위 칼럼의 비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인신공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위 칼럼은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고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평론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신문윤리강령은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언론인에게 주문하고 있다. 또 실천요강에서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칼럼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 「평론의 원칙」 전문,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전문, 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